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9월 27일(월) 총 5매			
담당 부서 수산자원 연구소	담당자 • 자원연구담당 구자근 ☎440-6420 • 담 당 자 김명일 ☎440-6424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블루카본(Blue Carbon) 탄소중립 사업 시작한다.
- 한국남동발전(주)와 탄소 흡수를 위한 해초류 이식사업 시작 -

인천시가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블루카본 탄소중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주변의 탄소를 흡수하는 해양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 주변으로 해초류(잘피)를 이식해 잘피 군락지를 조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19일 인천시가 한국남동발전(주)과의 ‘블루카본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후 ‘해초류 이식 적지 조사’ 등을 실시하고 8월 31일부터 인천연안 지역에 탄소흡수를 위한 해초류(잘피 등) 이식 및 경제성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됐다.

‘블루카본’은 해양 생태계에 의해 흡수되는 탄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블루카본 탄소 중립사업’은 해양자원을 활용해 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등을 흡수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 사업이다.

블루카본의 효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보고서 등 각종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 ① 이백 년 동안 공기 중으로 배출된 총 이산화탄소의 50%를 바다가 흡수
(국제원자력기구 IAEA)

② 바다는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5%를 흡수하고 수천 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RESOURCES & ENVIRONMENT, 2021)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우리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2005년부터 해초류를 이용한 바다숲 조성 연구를 실시해 특허 6건 보유 등 해초류 이식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며 “2010년 웅진군 자월면 이작리 해역에 이식 사업을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고,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 붙임 > 관련 사업 개요 및 사진자료

□ 해초류(잘피) 사업개요

○ 일 시 : 2021. 9. 27 10시

※ 기후 등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도 있음

○ 장 소 : 옹진군 영흥면 황서도 해역

○ 참석자(13명)

- 연구소 : 수산자원연구소장 등 3명
- 한국남동발전(주) : 환경품질처장 등 3명
- 인천대학교 : 김장균 교수 등 3명
- 기타 : 다이빙 및 촬영인원 등 4명

○ 주요내용

- 해초류(잘피) 수중 이식(200수) 실시
- 수중, 항공 드론을 이용한 영상 촬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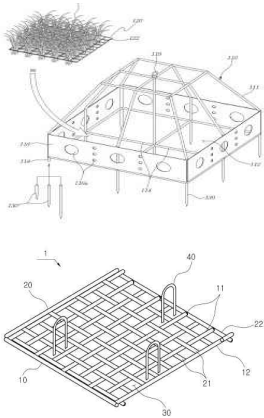
【이식 예정지】

□ 사진 자료



【이식할 해초류(잘피)】

〈이식방법〉



【잘피이식기구 : 이식틀(망)】

【이식망 사용(다이빙 이식)】



【이식 적지조사(다이빙 & 수중드론)】